

일부 군인들의 구강관리용품 사용실태 및 인식

심재숙·성정민

서남대학교 치위생학과

Some of the soldiers oral care products usage and recognition

Jae-Suk Shim · Jeong-Min Seong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eonam University

Received : 19 December, 2012

Revised : 15 February, 2013

Accepted : 15 February, 2013

Corresponding Author

Jeong-Min Seong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eonam University,
Peongchon-ri, Songak-myeon,
Asan-si, Chungnam, 336-922, Korea.
Tel : +82-41-539-5560,
+82-10-2205-7227
Fax : +82-41-539-5514
E-mail : hey1girl1@hanmail.net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some soldiers oral care products along recognition, and thereby to identify possible correlations among those factors.

Methods :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targeting 272 soldiers. The collected data was performed frequency & percentage, fisher's exact test, chi-square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 Respondents approving the implementation of water fluoridation were 50.5%. The general factors of approval were age, education, Monthly household income. The knowledge factors of approval were experience of hearing of this program, the knowledge of the purpose of this program, the knowledge of the some regions in South Korea had been implement water fluoridation. The results of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the awareness of oral health and the knowledge level of water fluoridation were related with this program approval.

Conclusions : The study suggest that oral care products should be include in military dental health care program. In addition to development dental health programs each military unit is dental health care between Korean soldiers.

Key Words : oral care products, oral health, soldier

색인 : 구강관리용품, 구강건강, 군인

서론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는 인류의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건강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 조건이고, 개인적으로나 가족의 행복 또는 국가적 번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건강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¹⁾. 그러나 구강의 건강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완전한 건강이라 할 수 없다²⁾. 보건복지부에서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차이를 갖고 살아가는 사회건설, 지역 및 소득계층에 따른 구강건강 수준의 차이 해소, 올바른 구강건강 생활실천을 통한 국민 구강건강증진도모 등 21세기 구강보건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해마다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³⁾. 이렇듯 중요한 구강건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질환으로는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이 있으며, 이 양대 질환은 한국인의 주된 치아상실의 원인이 되는 대표질환이다⁴⁾. 이러한 치아상실의 주요 원인이 되는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은 자연 치유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므로 구강건강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태도를 습득하여 평생 동안 스스로 구강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⁵⁾. 최근 들어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하듯이,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에 관한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 대상은 대부분 치과 병·의원과 접근이 용이한 일반인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구강의료의 혜택이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군인집단에 대한 연구는 희박한 실정이다¹⁾.

군 사회는 대부분 20대 비슷한 연령층의 서로 낮은 청년들이 모여 엄격한 규율의 준수 및 개인 문제가 거의 통제되는 집단이다. 또한 군인은 생명을 담보로 국가보위를 위해서 임무수행을 충실히 하는 집단으로 국가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절대적인 것이다. 국가안보에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들은 군대의 특성에 오지, 섬, 바다 등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곳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⁶⁾. 정 등¹⁾의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의 군인들은 구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며, 구강건강의 필요성은 인지하나, 정기적인 구강검진 및 관리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군인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대부분이 군인의 흡연과 구강건강, 구강건강상태, 구강건강증진, 구강건강실천 및 태도 등 실태에 관한 분석이며⁶⁹⁾, 군인들의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관리용품의 인지 및 사용실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의 대한민국 사회기반 초석이 될 국군병사들의 구강건강 상태 인식을 파악하고, 이들의 구강관리용품 인지 및 사용실태를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추후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군장병들의 구강건강 향상에 관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2012년 5월부터 6월까지 서울에 위치한 특전사령부 특공대본부 1곳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하여 조사하였다. 회수된 설문은 총 294부였고, 그 중 연구 자료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기입누락, 이중기입, 기입 불명확 등이 있는 22부를 제외한 총 272부를 분석대상으로 채택하였으며, 87%의 응답률을 보였다.

2.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김과 정 등¹⁰⁾과 정¹¹⁾의 설문도구를 참고하여 수정 및 보완하고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연구내용으로는 일반적인 특성 4문항, 구강관리용품 인지와 사용 여부 6문항, 개인의 구강건강 상태 1문항, 구강관리용품 사용 또는 미사용 이유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분석방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강관리용품 인지와 사용실태, 구강관리용품 사용 또는 미사용 이유는 빈도와 백분율로 조사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구강건강 상태에 따른 구강관리용품 인지 및 사용실태는 fisher's exact test와 chi-square test로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구강관리용품 인식과 사용에 대한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처리는 SPSS for windows version 12.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연구성적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는 총 272명이며, 연령별로는 '22~23세'가 69.1%로 가장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
Age	≤21	79	29.0
	22-23	188	69.1
	24≤	5	1.9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ion	38	14.0
	University student	229	84.0
	University graduation	4	1.6
	Graduate school student	1	0.4
Rank	Private second class	66	24.3
	Private first class	46	16.9
	Corporal	147	54.0
	Sergeant	13	4.8
Smoking	Yes	121	44.9
	No	151	55.1
Total		272	100.0

많았으며, '21세 이하' 29.0%, '24세 이상' 1.9%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으로는 '대학 재학'이 84.0%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14.0%, '대졸' 1.6%, '대학원 재학' 0.4%순이었다. 계급으로는 '상병' 54.0%, '이병' 24.3%, '일병' 16.9%로 나타났으며, 흡연여부에서는 흡연을 '안한다' 55.1%, '한다' 44.9%로 조사되었다.

2. 연구대상자의 구강관리용품 인지와 사용실태

연구대상자의 구강관리용품 인지와 사용실태는 <Table 2>와 같다. 구강관리용품 인지에서는 '이쑤시개'가 91.9%로 가장 높은 인지율을 보였고, '치실' 77.6%, '가글용액' 53.9%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여부에서는 '이쑤시개' 28.7%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가글용액' 18.4%, '치실' 15.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관리용품 인지 및 사용실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관리용품 인지 및 사용실태는

<Table 3>과 같으며, 계급과 흡연여부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다($p < .05$). 구강관리용품 인지의 응답가운데 계급으로 '상병'에서 65.0%, '이병' 18.3%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p = .016$), 흡연여부에서는 '안한다' 60.0%, '한다' 40.0%로 나타났다($p = .007$). 구강관리용품 사용실태에서의 계급에서는 '상병'에서 62.5%, '이병' 16.7%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p = .045$), 흡연여부에서는 '안한다' 70.8%, '한다' 29.2%로 나타났다($p = .034$).

4. 구강건강 상태에 따른 구강관리용품 인지 및 사용실태

응답자의 구강건강 상태에 따른 구강관리용품 인지 및 사용실태는 <Table 4>와 같다. 자신의 구강상태가 '나쁘다'라고 대답한 응답자 중 10%는 구강관리용품에 대해 알고 있으며, 57.1%는 알지 못하고, 구강관리용품 사용실태에서는 16.7%만이 사용하며, 58.5%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또한 자신의 구강상태가 '좋다'라고 대답한 응답자 가운데 65%는 구강관리용품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Table 2. Awareness and use of oral care products

	Awareness		Use of present	
	Know (%)	Un-know (%)	Use (%)	Un-use (%)
Tooth pick	250(91.9)	22(8.1)	78(28.7)	194(71.3)
Dental floss	211(77.6)	61(22.4)	43(15.8)	229(84.2)
Interdental brush	75(27.6)	163(72.4)	30(11.0)	242(89.0)
End tuft brush	72(26.5)	200(73.5)	17(6.3)	255(93.8)
Tongue cleaner	14(5.1)	258(94.9)	14(5.1)	258(94.9)
Gargle	144(53.9)	128(47.1)	50(18.4)	222(81.6)

Table 3. Awareness and use oral hygiene device of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wareness			Use of present		
	know (%)	Un-know (%)	p*	Use (%)	Un-use (%)	p*
Age						
≤21	12(20.0)	67(31.6)	.071	6(25.0)	73(29.4)	.051
22-23	47(78.3)	141(66.5)		18(75.0)	170(68.5)	
24≤	1(1.7)	4(1.9)		0(0.0)	5(2.1)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ion	7(11.7)	31(14.6)	.238	4(16.7)	34(13.7)	.347
University student	52(86.7)	177(83.5)		20(83.3)	209(84.3)	
University graduation	0(0.0)	4(1.9)		0(0.0)	4(1.6)	
Graduate school student	1(1.6)	0(0.0)		0(0.0)	1(0.4)	
Rank						
Private second class	11(18.3)	55(26.0)	.016*	4(16.7)	62(25.0)	.045*
Private first class	7(11.7)	39(18.4)		2(8.3)	44(17.7)	
Corporal	39(65.0)	108(50.9)		15(62.5)	132(53.3)	
Sergeant	3(5.0)	10(4.7)		3(12.5)	10(4.0)	
Smoking						
Yes	24(40.0)	97(45.8)	.007*	7(29.2)	114(46.0)	.034*
No	36(60.0)	115(54.2)		17(70.8)	134(54.0)	
Total	60(22.1)	212(77.9)		24(9.0)	248(91.0)	

*p-value by fisher's exact test or chi-square test at $\alpha = 0.05$

8.5%만이 알지 못하고, 구강관리용품 사용실태에서는 62.5%는 사용하며, 8.0%만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 < .05$).

5. 구강관리용품 사용 또는 미사용 이유

구강관리용품 사용 또는 미사용 이유는 <Table 5>와 같다. 구강관리용품 사용자 중 '치과의 권유'가 5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본인판단', '광고', '주변의 권유'에서 각각 25%, 12.5%, 8.3%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또한 구강관리용품 미사용자 가운데 '구강관리용품 사용법을 잘 몰라서'가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귀찮음', '필요성을 못 느낌', '비싸서'가 각각 33.5%, 16.1%, 10.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6. 연구대상자의 구강관리용품 인지에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구강관리용품 인지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보기 위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독립변수 중 치실($\beta = .188$, $p < .05$)과 치간칫솔($\beta = .149$, $p < .05$), 가글용액($\beta = -.028$, $p < .05$)이 응답자의 구강관리용품 인지에 미치는 관련요인들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R^2)가 .207로 종속변수를 20.7% 설명하고 있으며, 수정된 결정계수(R^2)는 .087로 나타났고, 분산분석 결과 회귀식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 4. Awareness and use oral hygiene device of according to oral health condition

	Awareness			Use of present		
	know(%)	Un-know(%)	p*	Use(%)	Un-use(%)	p*
Poor	6(10.0)	121(57.1)	.045	4(16.7)	145(58.5)	.036
Moderate	15(25.0)	73(34.4)		5(20.8)	83(33.5)	
Good	39(65.0)	18(8.5)		15(62.5)	20(8.0)	
Total	60(22.1)	212(77.9)		24(9.0)	248(91.0)	

*p-value by fisher's exact test or chi-square test at $\alpha = 0.05$

Table 5. The reason of use or un-use of oral hygiene device

(N=272)

Category	Frequency	%
Use motivation*		
Encouragement by dental or hygienist	13	54.2
Myself	6	25.0
Advertising	3	12.5
Encouragement by people	2	8.3
Un-use reason**		
Don't know how to use	98	39.5
Bothersome	83	33.5
Unnecessary	40	16.1
Expensive	27	10.9

*Oral care products users only respond

**Oral care products only people who do not respond

7. 연구대상자의 구강관리용품 사용에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구강관리용품 사용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독립변수 중 치실($\beta = .352, p < .05$)과 치간칫솔($\beta = .121, p < .05$)이 응답자의 구강관리용품 사용에 미치는 관련요인들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R^2)가 .182로 종속변수를 18.2% 설명하고 있으며, 수정된 결정계수(R^2)는 .164로 나타났고, 분산분석 결과 회귀식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총괄 및 고안

군은 국가보위를 위해서 임무수행을 충실히 하는 특수집단으로 군의 임무수행은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⁸⁾.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이 국토방위라는 신성한 의무수행을 위해 제한된 인적, 물적 자원으로 이루어진 군대라는 환경 속에서 집단으로 생활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지만, 그 중에서도 건강상의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¹⁾. 특히 구강영역에서의 동통과 원활하지 못한 식이는 장병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며, 전투력 상실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이들의 구강건강은 국민의 안전과 군 전투력 향상과 유지를 위하여 절대적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군장병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구강상태 그리고 구강건강관리 실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하는 연구¹²⁾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군인들의 구강건강 상태 인식을 조사하고, 이들의 구강관리용품 인지 및 사용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군인들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구강관리용품 인지와 사용실태에서는 ‘이쑤시개’, ‘치실’, ‘가글용액’에서 각각 91.9%, 77.6%, 53.9%의 순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사용중인 구강관리용품으로는 ‘이쑤시개’, ‘가글용액’, ‘치실’에서 각각 28.7%, 18.4%, 15.8%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같이 20대의 젊은 층을 주된 연구대상자로 선정한 이¹³⁾의 연구에서도 ‘이쑤시개’ 78.9%, ‘치실’ 68.4%의 순으로 인지하며, 현재 사용

Table 6. The affecting factors on the awareness of the oral hygiene device

(N=272)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1,942	.086		22,634	<0.001
Tooth pick	.022	.098	.015	.227	.820
Dental floss	.175	.065	.188	2,709	.007
Interdental brush	.126	.059	.149	2,118	.035
End tuft brush	.039	.069	.039	.572	.568
Tongue cleaner	.014	.060	.015	.239	.811
Gargle	.016	.036	-.028	.454	.646

Dependent variable=Awareness, $R^2=0.207$, Adj. $R^2=0.161$, $F=5.318(p < 0.001)$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alpha = 0.05$

Table 7. The affecting factors on the use of the oral hygiene device (N=272)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1,977	.020		99,069	<0,001
Tooth pick	.002	.038	.003	.047	.963
Dental floss	.274	.048	.352	5,751	.002
Interdental brush	.109	.056	.121	1,942	.043
End tuft brush	.039	.072	.034	.549	.583
Tongue cleaner	.084	.077	.065	1,088	.278
Gargle	.041	.045	.057	.923	.357

Dependent variable=Use, $R^2=0,182$, Adj. $R^2=0,164$, $F=9,840(p<0,001)$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alpha =0,05$

중인 구강관리용품 중 ‘이쑤시개’가 31.6%, ‘가글용액’ 15.8%, ‘치실’ 15.5%의 순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보였다. 김 등¹⁴⁾에 따르면, 이쑤시개의 경우 오랜 기간 사용 시 치아사이를 더 벌여 놓을 수 있고, 잘못된 사용법으로 치은퇴축이나 치은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올바른 구강관리용품 선정을 위한 군부대 내의 구강보건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그 내용으로는 올바른 구강관리용품 선정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관리용품 인지 및 사용실태에서는 계급과 흡연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전체 응답자 중 22.1%가 구강관리용품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치과 병·의원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채¹⁵⁾의 연구에서는 68.8%로 조사되어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응답자의 9.0%만이 구강관리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박 등¹⁶⁾의 연구 16.1%보다 낮게 조사되어 일반인들과 비교하여 군인들의 인지율 및 사용률이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과 의사나 치과위생사와 접촉할 기회가 적은 특수성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구강보건교육 전문가인 치과위생사 부사관의 증원 등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셋째, 구강건강 상태에 따른 구강관리용품 인지 및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구강건강 상태가 ‘나쁘다’ 10.0%, ‘보통이다’ 25.0%, ‘좋다’ 65.5%로 건강한 경우에 구강관리용품을 더 많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구강관리용품 사용실태에서는 ‘나쁘다’ 16.7%, ‘보통이다’ 20.8%, ‘좋다’ 62.5%가 구강관리용품을 사용하고 있어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판단할수록 구강관리용품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적절한 구강관리용품을 사용하여 구강건강상태가 좋아졌으리라 판단되며, 김¹⁷⁾의 연구에서도 구강건강관리의 태도가 좋을수록 개인의 구강건강관리 행동 수준도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구강관리용품 사용 동기로는 ‘치과의 권유’가 54.2%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판단’ 25.0%, ‘광고’ 12.5%로 조사되어 서 등¹⁸⁾의 연구와 김 등¹⁹⁾이 보고한 내용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구강관리용품 미사용 이유로는 ‘구강관리용품을 잘 몰라서’ 39.5%, ‘귀찮음’ 33.5%, ‘필요성을 못 느낌’ 16.1%로 조사되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문과 성²⁰⁾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들을 대상으로 구강관리용품의 필요성과 활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구강보건전문가가 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교육으로 구강관리용품 사용을 권유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며⁶⁾, 이를 위해서는 치과위생사 부사관을 현재 모집인원보다 확대 충원하여 거의 미실시되고 있는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구강관리용품 인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치실’, ‘치간칫솔’, ‘가글용액’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구강관리용품 인지도가 높을수록 ‘치실’과 ‘치간칫솔’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가글용액’은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구강관리용품 사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치실’과 ‘치간칫솔’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구강관리용품 사용률이 높을수록 ‘치실’과 ‘치간칫솔’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윤과 정²¹⁾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구강관리용품은 구강건강증진 행위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관련 요인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제된 집단생활로 인해 구강검진 및 치료, 구강보건교육의 기회를 가진 경험이 매우 낮은 군인들에게 올바른 구강관리용품들의 사용법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며, 이것은 군복무 기간의 구강보건교육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서울 소재 1곳의 군내 군인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기에 군인 전체에게 적용하여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

리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의 구강건강 상태 인식을 조사하고, 이들의 구강관리용품 인지와 사용실태를 파악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군인들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적합한 연구라 사료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폭넓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군인집단의 환경과 특수성을 고려한 구강건강 상태 인식과 구강건강증진 행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군장병들의 구강건강을 유지 및 개선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므로 군내의 구강보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지속적인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홍보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군인들의 구강건강 상태의 인식을 측정하고, 이들의 구강관리용품 인지와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횡단면 연구이다. 서울시에 소재한 특전사령부 특공대본부의 군부대 군인 2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구강관리용품 인지에서는 '이썬시개'가 91.9%, '치실' 77.6%, '가글용액' 53.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여부에서는 '이썬시개' 28.7%, '가글용액' 18.4%, '치실' 15.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 연구대상자의 구강관리용품 인지 및 사용실태에서는 계급과 흡연여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3. 구강건강 상태에 따른 구강관리용품 인지 및 사용실태에서는 자신의 구강상태가 '나쁘다'라고 대답한 응답자 중 10%는 구강관리용품에 대해 알고 있으며, 16.7%가 구강관리용품을 사용하고, 자신의 구강상태가 '좋다'라고 대답한 응답자 65%는 구강관리용품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62.5%가 구강관리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4. 구강관리용품 사용 동기로는 '치과의 권유'가 54.2%, 구강관리용품 미사용 이유는 '구강관리용품 사용법을 잘 몰라서' 39.5%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군인들의 구강관리용품 인지와 사용실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본 결과, '치실'과 '치간칫솔'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으로 조사되었고, 구강관리용품 인지와 사용률이 높을수록 '치실'과 '치간칫솔'에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군인들의 구강건강 상태 인식은 좋지 않은 수준이었으며, 구강관리용품에 대한 인지 및 사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군인들의 올바른 구강건강행위를 실천하여 군복무 기간 동안 올바른 구강건강관

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마련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군인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지도 및 관리할 수 있는 치과 군의관 또는 치과위생사 부사관의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Jung HY, Jung MA. A Study on the state of oral health care among military men : the case of the army and the navy. *J Korean Soc Hyg Sci* 2007; 13(1): 43-59.
2. Kim SA, Kim S, Yoon MS, et al. Contemporary preventive dentistry. Seoul, DaehanNarae, 2011, p 4-66.
3. Kim JB, Choi YJ, Moon HS, et al. Public oral health. 5th ed. Seoul, Komoonsa, 2009, pp 153-163.
4. Ro IK, Moon HS, Paik DI, et al. Study on the percentage of extraction required by causes in Korea. *J Korea Acad Dent Health* 1998; 22(3): 183-192.
5. Chang KW, Hwang YS, Kim JB, et al. Oral health education. 4th ed. Seoul, Komoonsa, 2007, pp 177-178.
6. Yoo JS, Kim J, Kim KE. The effects of some soldiers' stress on their oral healthcare practices and attitudes. *J Dent Hyg Sci* 2009; 9(4): 369-374.
7. Jeon MJ, Hwang SH. A study on actual smoking condition,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related to dental health of korean soldiers. *J Korean Acad Dent Hyg Edu* 2010; 10(2): 243-254.
8. Han SY, Song KS, Ryu DY. Oral health concern and oral healthcare recognition of some soldiers. *J Korean Soc Dent Hyg* 2012; 12(5): 1007-1015.
9. Yoo JS, Kim KE, Kim J. A study on actual smoking condition,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related to dental health of korean soldiers. *J Korean Acad Dent Health* 2009; 33(3): 356-366.
10. Kim JY, Jung KO. The awareness of oral treatment and use of present in dental patients. *J Korean Soc Hyg Sci* 2009; 15(2): 61-70.
11. Jung KO. A survey about the use of oral hygiene device and awareness some of the middle age people. *J Korean Acad Dent Hyg Edu* 2009; 9(4): 580-592.
12. Jung JJ, Kang DJ, Kim PS. A study on the oral health management practices of army. *J Korean Military Med Ass* 1995; 26(1): 26-32.
13. Lee BH. A study on the status recognition oral hygiene devices status by periodontal treatment needs. *J Korean Soc Hyg Sci* 2008; 14(1): 45-53.
14. Kim JB, Paik DI, Park DY, et al. Preventive dentistry. 3rd ed.

- Seoul, Komoonsa, 1999, pp 50-84.
15. Chae MS, Study on for the use of auxiliary oral hygiene devices among dental patients[Master's thesis]. Daegu: Univ. of Hanny, 2007.
 16. Park HS, Kim JS, Choi BK, The actual conditions of patients health at "s" college dental clinic, J Dent Hyg Sci 2006; 6(2): 127-131.
 17. Kim SK, A study on the status of recogni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oral hygiene devices : with outpatient as the central figure, J Dent Hyg Sci 2002; 2(2): 95-103.
 18. Seo EJ, Sin SC, Seo HS, Kim EJ, Jang YS, A survey on Koreans' behavior about the use of oral hygiene devices, J Korean Acad Dent Health 2003; 27(2): 177-192.
 19. Kim JB, Paik DI, Moon HS, Jin BH, Song YH, Dentists' and dental patients' attitudes toward oral hygiene devices selection, J Korean Acad Dent Health 1992; 16(2): 493-504.
 20. Moon YM, Seong JM, A survey on some college students' behavior about the use of oral hygiene devices, J Korean Acad Dent Hyg 2012; 14(1): 23-29.
 21. Youn HJ, Jung EJ,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dental hygiene students and nonhealth-related majors in Gwangju, J Korean Acad Dent Hyg Edu 2010; 10(2): 231-240.